



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美·중간 주도권 경쟁양상 및 시사점

박영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(parkyh@kiep.go.kr, Tel; 3460-1231)

주요 내용

- 중국은 급증하는 석유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아프리카 석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.
 -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원조제공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.
 - 중국의 적극적인 자원확보 노력에 따라 금년(1~10월)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수입액은 118억 달러(중국 전체 원유수입액의 30%)에 달했는데, 이는 사우디산 석유수입액의 1.8배에 해당하는 규모임.
 -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석유 등 에너지자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물자원, 목재 등 각종 원자재를 망라하고 있음.
- 중국의 이러한 아프리카 자원공략은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 - 미국의 싱크탱크인 CFR은 「아프리카전략보고서」를 통해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미국정부의 새로운 아프리카 접근전략을 강조하였음.
 -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·중간 주도권 경쟁은 나이지리아, 앙골라 등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아프리카 기네아만(Gulf of Guinea) 지역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.
-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함.
 -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면에서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자원시장의 다변화임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자원강국과의 자원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함.

1. 개요

-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조달 문제가 자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원조제공 및 정상방문 등을 통해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음.
- 이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 - CFR의 「아프리카전략보고서」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개도국 이미지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자원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, 심지어는 불법목재를 대량 수입함으로써 아프리카 산림자원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.
 - 미국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, 9.11 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변화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이 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석유공급기지로 다루어오고 있기 때문임.
-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임.
 - 아프리카 대륙은 상당한 규모의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개척지로서, 개발 붐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 센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.
 -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매장량과 산유량 비중이 각각 7%, 10%로 중동이나 가스피해에 비견될 수는 없지만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중동지역 대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.
 - 특히 나이지리아, 앙골라, 적도기니 등의 신흥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아프리카 기네아만의 경우에는 심해유전개발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2008년경에는 일일 생산량이 700~8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2.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

가. 산유국으로의 외교력 집중

-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은 제3세계에서의 정치적 리더십강화 차원을 뛰어넘어 석유 등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실리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.
- 그동안 중국의 경제협력은 아프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유국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.
- 이는 과거 중국이 사회주의 동맹의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접근했다면 지금은 석유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.
-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석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, 니켈, 알루미늄, 구리, 목재 등의 각종 원자재를 망라하고 있음.
- 아프리카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(150억 달러)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9.0억 달러 정도로 6.0%에 그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음.

표 1. 미·중의 아프리카 석유개발 특징 비교

중 국		미 국
30%(2004년) ⇒ 45%(2025년) ¹⁾	도입비중 (물량기준)	15%(2004) ⇒ 25%(2015년)
수단·앙골라·콩고(22.7%)	3대 수입국 ²⁾	나이지리아·앙골라·알제리(18.2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조공여를 통한 개발권 확보 •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(정상방문 등) • 국제적 지위활용 (유엔의 경제제재 반대 등) • 국영기업의 저가입찰 	주요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제재 ⇒ 자국기업 철수³⁾ (수단, 리비아⁴⁾) • 중국의 대한 경각심 • 기네아만(서아프리카) 중점개발 • 새로운 접근전략 필요성 제기 (에너지포럼, 산유국과의 외교강화 등)

주: 1) EIA의 전망치, 2) 2004년 금액기준, 3) 예컨대 미국 Chevron사는 1970년대 수단 유전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, 최초로 10억 배럴 상당의 원유를 발견하였으나 1980년대 말 자국의 경제제재 발동으로 철수, 4) 2004년 4월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

자료: CFR(2005. 12), *More than Humanitarianism: A Strategic U.S. Approach Toward Africa* 등 각종 자료에 의거 하여 필자 작성.

- 중국이 전략적 석유공급처로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수단임.
 -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수단의 석유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.
 - 2004년 4월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규모 인종학살(Darfur 사태)이 자행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경제제재안을 상정하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대규모의 자금을 수단 석유산업에 투자하였음.
 - 중국은 현재 수단 남부지역에서 유전개발 및 정유산업 그리고 송유관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 전반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음.
- 수단 다음으로 석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산유국은 앙골라,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아프리카 기네아만지역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, 리비아 등임.
 - 앙골라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차관제공 등을 통해 원유개발권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그 결과 중국은 이미 앙골라 원유 총생산분 가운데 25%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.
 - 2005년 7월에는 나이지리아와 8억 달러 상당의 원유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에 걸쳐 3만 b/d의 원유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음.
 - 이외에도 중국은 각종 개발지원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유전개발권 선점 또는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.
 - 리비아와는 당시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송유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03년에는 900여명의 중국인 석유근로자들을 리비아 서부사막(Western Desert)에 파견하기도 하였음.
- 이들 국가 이외에도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가로는 차드, 콩고 등의 산유국들로 원유공급 계약, 유전의 지분매입 및 개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.
 - 차드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원유개발탐사권을 획득하고 시추작업에 착수한 상태임.

-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개발은 정상방문 등 석유외교에 의해 상당부분 견인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SINOPEC(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), CNPC(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) 등 국영기업들이 석유확보에 우월적인 위치를 장악해 나가고 있음.
- 지난 2004년 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아프리카(이집트, 가봉, 알제리) 방문의 핵심의제 역시 석유협력이었음.
- 가봉에서는 후 주석의 차관제공 약속과 동시에 석유공급 계약이 체결(2004.2)되었으며, 알제리와는 석유협력을 포함하는 경제·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음.

표 2.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석유산업 진출사례

	주요 내용
수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NPC, 수단 컨소시엄(GNPOC)의 Heglig·Unity 유전개발지분 40% (최대 지분으로 4.4억 달러상당) 인수(1996) • CNPC, Heglig·Unity유전~홍해 송유관(930 마일) 건설(1998) • CNPC, 원유수입 개시(1999.5) • CNPC, 남부지역 Darfur 유전에서 시험생산(2004.4) • CNPC, Melut유전(수단 전체 원유생산의 50%) 지분 41% 확보 • Melut유전~수단항(Port Sudan) 송유관 건설 중
앙 골 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유수입 개시(1988) • SINOPEC, 장기저리 차관(20억 달러)제공으로 석유개발권 획득 • SINOPEC, 현재 앙골라 원유총생산의 25% 지분확보
알 제 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NPC, 원유개발권 획득(2002.10) • CNPC, Adrar 유전개발권(매장량 6억 배럴) 획득(2003.5)
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INOPEC, 8억 달러 상당의 원유구매계약 체결(2005.7) (향후 5년간 3만 b/d 원유도입) • 현재 국제입찰 중인 4개 광구의 개발권 획득이 거의 확실시 됨 (중국기업은 수력발전소 건설지원 등 제시) • 향후 중국의 투자규모는 70억 달러까지 확대 예상

자료: Douglas A. Yates(2005. 9. 27), Chinese Oil Interests in Africa 등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.

나.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도입 현황

- 중국은 아프리카 석유공약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.
- 2004년도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(HS 2709) 도입액이 무려 100억 달러 가까이 달했는데 이는 같은 해 중국 전체 원유도입액의 30%에 해당하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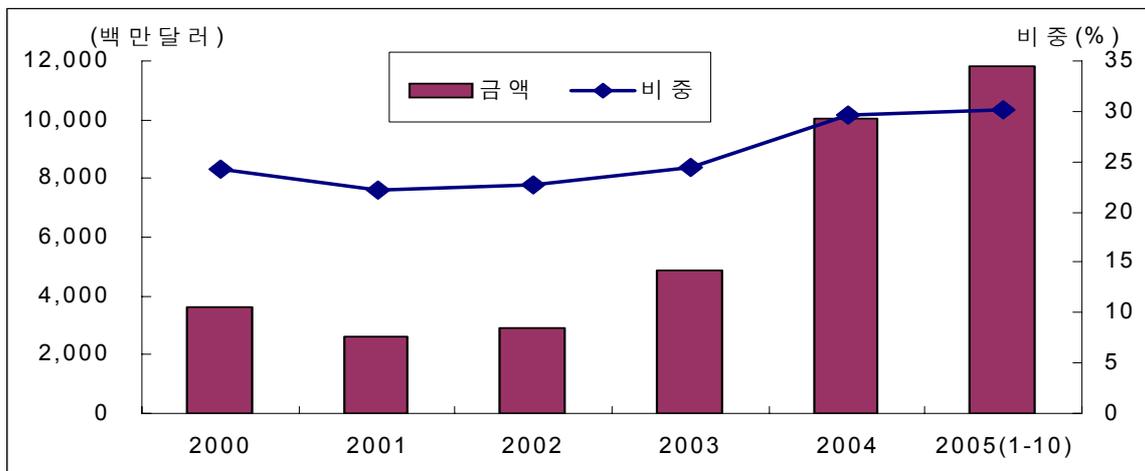
- 이같은 규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석유공급원이었던 사우디로부터의 석유 수입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임.

※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수입 급증에 따라 2002~04년 동안 양국간 교역규모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, 216억 달러에 달했음.

- 아프리카 주요 수입선(2004년 기준)은 앙골라(47.2억 달러), 수단(16.6억 달러), 콩고(13.4억 달러), 적도기니(9.3억 달러)로 중국 원유공급의 25.5%를 담당하고 있음.

■ 이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전체 석유수입 규모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장기비전을 가지고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외교력을 집중해 온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의 결실로 볼 수 있음.

그림 1.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수입 현황



자료: 중국 무역통계

3.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개발

가.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공략에 대한 경계심

■ 중국의 필사적인 석유확보 노력은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
- 미국 언론들은 자국정부가 아프리카 전략의 부재와 경제제재 발동 등 강경책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해온 반면에 중국은 장기비전을 가지고 유대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음.

■ 미국의 싱크탱크인 CFR(Council on Foreign Relations)는 금년 12월 장문의 아프리카전략 보고서(*More than Humanitarianism: A Strategic U.S. Approach Toward Africa*)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로 아프리카에서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아프리카 접근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
※ 동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을 역임했던 앤서니 레이크 등 주요인사로 구성된 Task Force에 의해 작성되었음.

- 동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적 지위와 개도국 이미지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은 물론이고 광산물 및 목재 등 각종 원자재를 사실상 휩쓸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인종학살과 폭력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수단, 짐바브웨 등과 같은 “불량배국가(rogue states)”에게까지도 군사무기를 공급하며 무차별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음.

- 또한 중국은 불법 벌목업자들로부터 목재를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산림자원 및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
- 동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대가봉 목재수입 가운데 70%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적도기니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90%에 달하고 있음.

- 더욱이 중국의 원조제공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아프리카 자원공략은 원조와 투자를 부패척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의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기간시설 공사수주를 독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.

- 나아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경쟁관계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정부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을 주문하였음.

- 동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아프리카를 인도적 지원대상으로만 본다면 10년 후 미국은 아프리카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, 외교, 경제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음.

**CFR 「아프리카 전략보고서」 핵심내용
(자원관련 부분)**

-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
 -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원조제공 등을 통해 자원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관계에 직면해 있음.
 - 여기에 유럽은 물론 인도, 말레이시아, 한국 등까지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의 자원경쟁이 가열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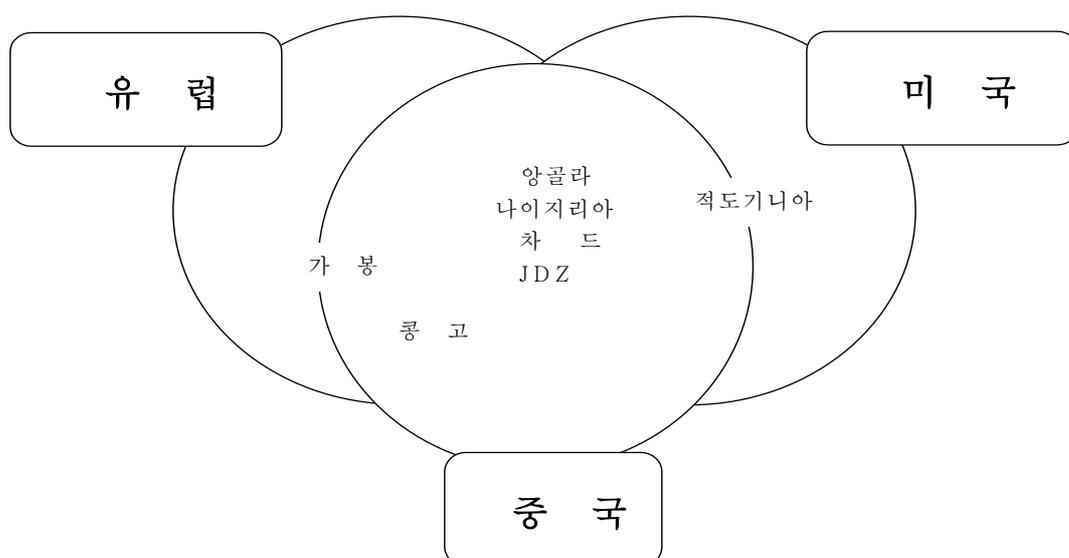
- 아프리카 석유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
 -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 이외에 새로운 원유공급원 확보가 중요한데 서부 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
 - 이 지역은 수송측면에서 중동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, 저유황의 고품질 유종으로 환경보호에도 적합함
 - 향후 10년내 아프리카 석유생산은 두 배 증가할 전망
 - 향후 10년 후 미국의 아프리카(사하라이남) 석유의존도가 중동지역과 비슷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- 심해유전 탐사 및 개발기술에 있어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음
(기네아만 원유생산의 대부분은 심해유전에서 개발)

- 미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전략 수정
 - 아프리카를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전략 필요
(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함)
 - 미·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창설
 - 산유국(특히 기네아만)과의 외교관계 격상
 - 석유외교 확대(장관급의 아프리카 산유국 방문 횟수 확대)
 - 기네아만 지역의 해상안전 확보
(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한 원유절도, 자금세탁, 무기밀매 근절을 위한 군사지원)
 - 아프리카 인권보호와 함께 미국의 개입(engagement) 확대
 - 아프리카대륙을 글로벌경제로의 유도(아프리카의 주변화 방지)
 - 아프리카에 대한 ODA 확대 및 지역협력체제 마련

자료: CFR(2005. 12), *More than Humanitarianism: A Strategic U.S. Approach Toward Africa.*

-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·중간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 나이지리아, 앙골라, 적도기니 등의 신흥 산유국이 몰려있는 서부아프리카 기네아만 지역에서의 석유 확보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30%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고, 앞으로는 그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.
-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의 주요 수입선인 나이지리아 석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.
- 미국은 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의 석유도입 비중(물량기준)을 현재의 15%에서 2015년경에는 25%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.
- 현재 서부아프리카 석유개발시장은 크게 유럽, 미국, 중국 등 3대 세력권으로 분할되어 있음.
- 미국의 경우 Exxon Mobil, Chevron Texaco 등 거대 오일메이저들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거대 산유국에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수단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.

그림 2. 서아프리카 기네아만 석유개발의 세력판도(2005년)



주: JDZ는 나이지리아·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지역

자료: Douglas A. Yates(2005. 11), Chinese Oil Interests in Africa(부분수정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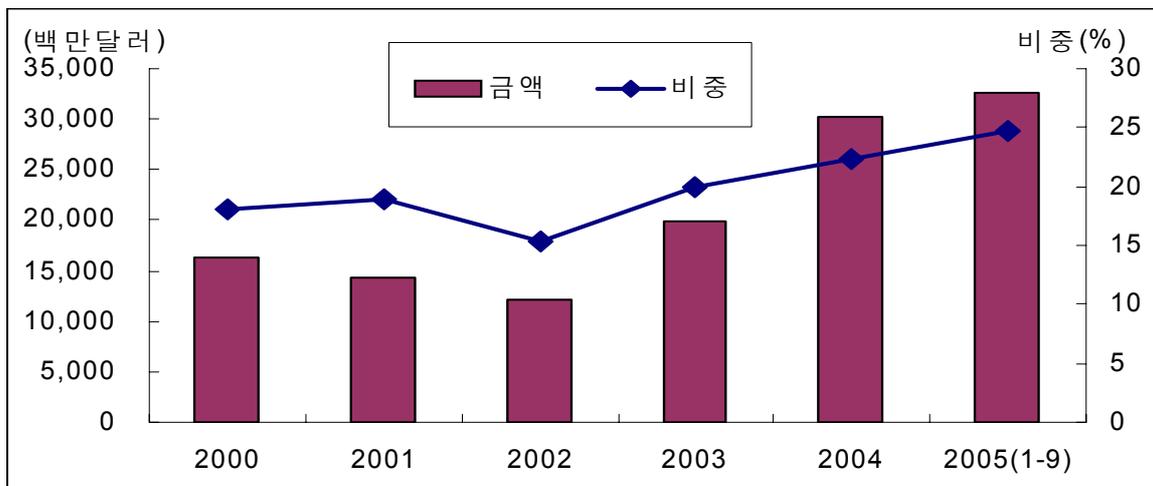
-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도,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 석유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나. 기네아만 석유개발에 집중

- 아프리카지역이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개발계획도 본격화되고 있음.
- 부시 미 행정부는 2001년 9.11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불안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아프리카 기네아만을 주목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오고 있음.
- 석유업계, 의회, 국무부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아프리카석유정책그룹(AOPIG: African Oil Policy Initiative Group)은 2015년까지 서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도입 물량을 현재보다 2.5배 많은 250만 배럴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미국 동부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개발접근과 수송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.
- 미국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들 산유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.
- 지난 2003년 7월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3번째로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고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것도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개발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- 미국의 석유안보와 아프리카의 석유개발 추세를 감안하면 미국과 아프리카간의 외교관계는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2004년 4월에는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도 사실상 해제되어 미국의 리비아 석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미국의 아프리카 원유수입 의존도(금액기준)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20억 달러로 25%를 상회하였음.

- 이는 주력 수입원인 사우디(14.5%), 베네수엘라(13.5%), 멕시코(13.0%) 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.
- 아프리카 가운데 미국의 최대 석유공급원은 나이지리아로 지난해의 경우 162억 달러로 미국 전체 원유수입액의 11.3%를 차지하였으며, 이외에도 알제리와 앙골라가 각각 3.7%, 3.2%를 나타냈음.
- 그동안 미국은 원유수입의 절반 정도를 사우디, 멕시코, 베네수엘라 등에 의존해 옴으로써 아프리카의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으나 9.11 사태 이후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.
-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물량기준 수입의존도가 2015년 경에는 중동의존도와 비슷한 25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
그림 3. 미국의 아프리카 원유도입 현황



자료: 미국 무역통계

4. 아프리카의 석유개발 잠재력

가. 서아프리카(기네아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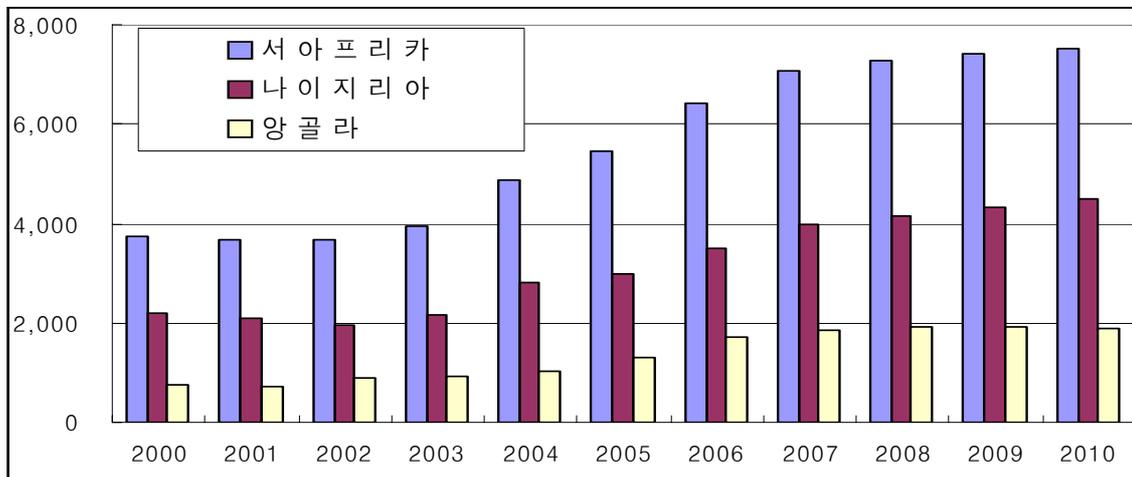
- 서아프리카의 기네아만은 여타 산유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

은 미개척지로 세계 오일메이저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음.

- 오일메이저들은 심해유전 개발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실제로 근래 들어 다수의 경제성 있는 심해유전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음.
- 2008년경 서아프리카의 원유생산은 나이지리아, 앙골라, 차드, 적도기니 등의 개발사업 확대로 700만~800만b/d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 심해 유전개발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420만b/d, 앙골라는 200만b/d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- 이외에도 주요 산유국으로는 콩고, 카메룬, 가봉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근래 들어 인근 산유국들과는 달리 신규 유전개발사업의 부진으로 1980년대의 오일 붐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음.

그림 4. 서아프리카 원유생산 전망

(단위: 천 b/d)



자료: West Africa Oil and Gas Sourcebook(2004)

- 서부아프리카지역은 막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발사업 진출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.
- 조직화된 범죄조직(crime syndicate)의 원유절도 규모가 하루 7만~30만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무기 밀거래로 이어짐.

- 이를 금액으로 환산(배럴당 60달러로 가정)하면 최소한 연간 15억 달러에 달함.
- 또한 대부분의 유전이 심해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개발비용이 높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.

나. 북아프리카

-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부국인 리비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390억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10억 배럴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유전만 해도 12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.
- 더욱이 국토의 70% 정도가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원유매장량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(ILSA법)로 인해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실제생산량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었으나, 2004년 4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진출재개와 리비아 정부의 석유개발 의지가 결부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- 아프리카 최대의 국토면적을 지니고 있는 알제리 역시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.
-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2%에 해당하는 규모임.
- 알제리산 원유 역시 저유황 성분의 경질유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원유생산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하라사막 중앙지역 및 리비아와의 국경지대와 같은 육상 유전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5. 정책적 시사점

-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면에서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자원시장의 다변화임.
-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도입 비중은 4~5%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-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들여오는 개발수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, 아프리카지역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.
 -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콩고(DROC, 구 자이르)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, 말레이시아는 수단, 차드 등의 유전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였음.
 - 지리적 원거리에 따른 운송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, 기네아만 지역의 경우 미국 동부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우리 진출기업이 원유생산물을 현지에서 미국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오일머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.
- 해외석유개발 사업 역시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.
-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임.
 -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정상(頂上)이 직접 나서 아프리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큼.
- 아프리카 자원강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함.
-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콩고(DRC)가 자원협력약정 및 자원협력위원회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최근 MOU가 체결된 상태임(회의는 미개최).
 - 자원협력위원회 대상국가로는 아프리카 석유대국인 나이지리아, 앙골라, 리비아, 알제리 그리고 최근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적도기니 등을 들 수 있음.
-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지역과 양자 차원의 협력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음.
- 민관합동협의체('한-아프리카 협력포럼')를 창설,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·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.